

지역 소식통

부안군, 추석 연휴 환경 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부안군은 18일부터 10월 3일까지(16일간) 추석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명절 전인 18일부터 27일까지 중점감시 대상지역에 대해 사전홍보·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하고, 추석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농공단지 및 주변하천 등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올해 부안군은 환경오염배출업소 180개소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29건, 과태료 13백만원, 고발5건 등 지도단속을 수행하였으며, 추석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 취약업소·지역 사업장,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조치 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구시포해수욕장 지중화공사 완료

고창군이 2021~2023년까지 3년간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구시포해수욕장 지중화공사'를 끝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구시포해수욕장 지중화 공사는 한전 등 협력업체들과 지난 2021년 9월 협약을 맺고, 올해 2월부터 시설공사에 들어가 어지럽게 얽혀 하늘을 가리던 전선과 통신선 모두를 지하로 매설했다.

또 해수욕장 지중화공사의 일환으로 해수욕장 거리를 전면 재포장에 이전보다 훨씬 쾌적하고 안전한 구시포해수욕장으로 탈바꿈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지중화공사 환경개선을 통해 구시포해수욕장이 명품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부관이 복원 이론적 토대 마련

정읍시, 한국프레스센터서 고부농민봉기 재평가·관아복원 위한 학술대회 개최

정읍시는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고부농민봉기(이하 고부봉기) 재평가와 고부관이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고부관이복원추진위원, 동학단체,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 기초발제를 맡은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부봉기의 역사적 왜곡을 지적하며, 고부봉기를 보는 시각을 새롭게 정리했다.

신 교수는 "고부봉기는 동학농민혁명과 직결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이 고부봉기를 계획하고 추진해간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1주제는 예원대학교 이동희 교수의 '19세기 고부군의 통치행정과 향촌



'고부농민봉기 재평가와 고부관이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회로 '왜 고부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고부의 지역적 특징을 통해 행정체제와 향촌사회질서 차원에서 살폈다.

제2주제는 '고부봉기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서강대학교 조재곤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고부봉기 발생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언론 개인을 포함한 일본

인이 이해하고 있던 고부봉기의 전모를 통 시기에 작성된 자료를 중심으로 살폈다.

제3주제 발표를 한 연세대학교 최윤우 교수는 당시 고부 농민군의 지향점과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부군 달천면 토지자료, 핵심인 자료를 분석해 당시 농민군의 존재 형태를 추적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3 고창 고인돌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개막

빛·프로젝터 활용 대형 스크린 등 선보여... 체험 콘텐츠 다채

우리나라 유일의 선사시대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과 디지털 체험 콘텐츠가 결합한 '2023 고창 고인돌 유적 문화유산 미디어아트'가 화려하게 개막했다.

고창군과 문화재청, 전라북도, 한국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별뿔별이 떨어지는 순간 다시 순환하기 시작하는 삼천년의 시간여행·별빛기행'을 주제로 고인돌박물관과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10월 14일까지 진행

된다.

15일 오후 7시30분 고인돌유적지 중심부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이경신 고창군의회 부의장 등 다수의 내빈과 고창군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메인 미디어아트쇼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고인돌 공원에, 꽃이 만개한 순화의 정원이 생겨나'를 주제로 웅장한 음악과 맵핑영상, 조명이 어우러지는 화려한 라이팅쇼가 펼쳐져 눈

길을 끌었다.

70명의 팝페라 공연단과 합창단이 출연하는 고창의 문화와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와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공연과 화려한 드론쇼가 펼쳐져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고인돌 세계유산 미디어아트쇼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현대 첨단기술이 더해진 다양한 미디어 퍼포먼스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북면 행복마루관 개관

정읍시 북면 주민자치센터인 행복마루관이 지난 14일 개관식을 가지고 본격적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임승식 도의원, 오명제·오승현·고성환·송기순 시의원, 박근수 북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장과 주민 다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관식에서는 그간 행복마루관 지역역량강화 추진 경과보고와 영상상영 등이 이어졌다. 이후 사업 관계자 간

사패 수여와 기념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박근수 추진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북면민의 오랜 숙원이던 행복마루관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행복마루관을 통해 주민공동체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주민 전체의 교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주도적이고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행복마루관은 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주민 간 소통과 화합



을 위해 건립됐다. 연면적 44.81㎡의 2층 규모 시설로 목욕탕, 건강진실, 회의실 등의 공간을 갖췄다. 시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15일 제3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예산 삭감, 예산 폭력"

부안군의회, '새만금 예산 복원' 삭발투쟁 나서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15일 제 34회 임시회를 개최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각 위원회별로 '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7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박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새만금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만금 예산을 부처별 요구액대로 확보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어서 본회의 후, 새만금 SOC사업 예산 삭감 반대 부안군의회 의원 결의대회 삭발식을 가졌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병래 의원은 새만금 사업 예산 78% 삭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예산 폭력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수 의장은 "점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전북지역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인 음모로 부안군의회는 전라북도민과 부안군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공감하며 새만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예산을 부처 요구액대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9월 20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시행

정읍시는 오는 20일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안전한 접종을 위해 대상군별, 연령별로 분산해 접종 시작 시기를 달리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20일부터는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처음

접종 대상자), 10월 5일부터는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

7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70~74세는 10월 16일부터, 65~69세는 10월 19일부터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지역발전 공헌한 명장 발굴 나서

정읍시가 산업현장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 지역 발전에 공헌한 2023년 명장(明匠) 발굴에 나선다.

지역 산업을 이끌어 온 명장을 발굴·선언해 시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직종 종사자인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확립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명장 신청 자격은 정읍 산업현장 등 일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지역 숙련기술

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신청은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류 등을 갖춰 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창출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창출팀(063-539-8114)으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 증서와 인종 명패를 수여하고, 1년에 300만원씩 2년간 연구활동비가 지원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